

제4회 6.15 공동선언 기념 걷기대회

“6월 15일, 평양까지 함께 걸어요”

평화와 통일 위한 걷기대회,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성공

6.15 공동선언 8돌을 기념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걷기대회가 지난 6월 15일 영도 태종대공원에서 진행됐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영도 민주당체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부산시민 약 1,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에 걸쳐 태종대 순환로 산책 및 각종 부대행사와 경품추첨이 잇달아 진행되었다.



부산 지역 유일한 6.15 기념행사

2005년 '8.15 남북통일축구대회' 이후로 정부 차원의 통일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6.15공동선언 기념 걷기대회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열린 6.15기념행사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개최돼 왔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걷기대회라는 종목을 채택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배우 안석환씨와 참가한 시민들이 걷기대회 출발 테이프를 끊었다.

6월 15일 포용의 날 캠페인도 벌어져

올해는 기존의 걷기대회와 달리 매년 6월 15일을 포용의 날로 만들자는 캠페인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00년 남북 두 정상 간의 포용을 보여 느꼈던 감동을 계속 이어가자는 취지로

기획된 것. 통일여성회 소속으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김윤정(26)씨는 걷기대회에 참여한 뒤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운동'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김윤정 씨는 "지속적으로 통일 관련 행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빠른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북측과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며 지난해 발표된

10.4 남북공동선언과 같은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진행을 맡은 노정현(32)씨는 "남북 간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되었으나 군사적인 문제들은 계속 풀어나가야 한다"며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좀 더 진정성 있게 다루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최철훈 기자 cch9892@hanmail.net

■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마련한 통일 쌀농사

“북녘 동포들 따뜻한 밥 드세요”

한술밥 한겨레 통일농사 ... 올해도 '알찬 비지땀'

지난 6월 1일, 경남 의령 한 논. 모내기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손길이 영 어색하다. 이들은 북측 동포들을 돕기 위한 통일농사 모내기예 참가한 사람들로 매달 5,000원씩 기부하여 북녘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주는 부산의 '통일 농사꾼'들이다.

통일농사란 수확된 쌀의 절반은 북녘 동포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참가회원들의 가정으로 보내는 새로운 방식의 통일사업으로, 부산 강서구와 경남 의령군에 5,000평씩 총 10,000평의 논이 이런 방식의 통일농사로 경작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수확량은 12톤 정도. 이 중 절반인 6톤 정도를 올해 말 북측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번 모내기 행사는 회원이 내는 회비로 수확되는 쌀이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직접 체험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의령군농민회와 시민단체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수입쌀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농가의 사기도 높여주고, 북녘으로 보내지는 쌀에 담긴 동포애도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기획했다고.

이번 체험에 참가한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의 김정희 학생(부산진여상 2)은 "모내기철에 이렇게 직접 논에 들어와 농사짓는 일을 경험하면서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며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과 부모님과 다시 와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병규(34) 정책실장은 "참가자들이 모두 통일농사를 의미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며 "농민들과 도시민이 스스럼없이 어울려 일손을 나누고 비지땀을 흘린 귀한 경험도 함께 수확했다"고 행사의 성공을 기뻐했다.



▲ 통일쌀농사 모내기예 참가한 시민들이 논에서 모를 심고 있다.

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 청년한의사회, 통일농사회원 등 약 300명이 참여한 이번 모내기 행사에서는 모내기 외에도 토마토를 직접 따보고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피라미 잡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어우러져 참가자들의 재미를 더했다.

오윤정 기자 oss1233@hanmail.net
한지수 기자 his531@naver.com

통일농사꾼 회원가입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ongilsa.org)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전화 051-626-0615 또는 팩스 0303-0621-8159를 통해 할 수 있다.